

문제 1.

제시문 (가),(나),(다)는 모두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 간의 관계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행복의 상호 영향 여부와 희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인다.

먼저 (가)는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개인의 행복은 타인의 행복에 의해 규정되지 않고 개인의 운명과 사회규범에 의해 규정된다. 노예가 되어 겪는 불행과, 주인이 되어 겪는 행복은 운명적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운명에 순응하여 주어진 책무를 다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 사회규범에 순응하여 행복을 찾는 수동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반면, 제시문 (나)와 (다)는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간의 상호 영향 여부를 인정한다. (나)에서 남편의 출유는 부인에게 고통과 불행을 안겨준다. 즉, 남편의 행복추구가 부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제시문 (다)에서는 개인의 선택이 공동체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을 지상의 과제로 삼는다. 즉,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이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나)와 (다)는 행복의 희생 가능성에 대해서 각자 다른 입장을 취한다. (나)는 행복이 상충될 때 개인의 행복이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남편의 출유가 부인의 행복을 침해한다면, 남편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타인의 희생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여성에게만 정절을 강요하는 사회규범에 저항하며 행복을 추구하는 행동으로 해설될 수 있으며 (가)와는 상반된 태도를 보여준다. 반면, 제시문 (다)는 공리를 위해 개인의 행복이 희생되는 것을 정당화한다. (나)의 주인공 여성이 겪는 불행이 가족구성원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킨다면, 공리의 원리에 따라 합리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개인의 행복을 희생시킬 수 있음을 암시한다.

문제 2.

제시문 (나)는 각 개인 간의 행복도 차이가 적은 사회를 이상적이라고 여긴다. 한 사람의 행복도가 평균보다 월등하게 높고, 다른 사람의 행복도는 평균보다 현저하게 낮다면, 그 사회는 위화감과 불안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이상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행복의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여 행복도의 양극화로 나아갈 수 있다는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는다.

제시문 (라)의 도표에서 국가군 B는 전체적인 국민 행복도는 높지만, 행복의 표준편차도 크다. 다시 말해, 개인 간의 행복도 차이가 큰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국가군 C는 국가군 B보다 전체적으로 행복도의 수준은 낮지만 표준편차가 작다. 즉, 개인 간의 행복도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는 국가군 C가 더 이상적이라고 판단한다.

제시문 (다)는 (나)와 달리 각 개인간의 행복도 차이보다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의 행복도 총합을 더 중시하는 입장이다. 개인들의 행복도 차이와는 관계 없이, 국가적 행복도를 최대화시킬 때, 개인의 행복도 일정 수준 이상을 보장받을 수 있다. 국가적 차원의 행복도 평균은, 결국 개인들의 행복수준의 총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 간 행복의 차이가 크다고 하더라도, 국가적 차원에 손해를 야기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그 편차는 충분히 용인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제시문 (다)의 입장에서는, 국가군 B가 더 이상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다. 행복의 차이가 적을지라도 행복의 총합과 평균이 낮은 국가군 C는 이상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또한, B의 행복도 차이가 C보다 크다고 할 지라도, 그 차이가 C에 비해 심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용인될 수 있다. 결국, 상대적으로 큰 표준편차를 감안하더라도, 행복도의 평균이 높은 국가군 B가 더 이상적인 사회로 여겨지는 것이다.